

# 2040년 충남인과 삶터

2018. 3. 20.

미래전략연구단 후원 표



# CONTENTS

01. 충남의 미래 2040 연구 소개

02. 2040년 충남인

03. 2040년 충남의 삶터

# 01. 충남의 미래 2040 연구: 연구 방식 개요

## ‘알아서 하는’ 자율 연구

- 연구의 자율성 대폭 부여 → 자발적인 자율적 협동연구의 시작 \*모델 확산 중
-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연구
  - ➔ 기획 과정에 많은 노력 투입(기획편집위원회와 자문위원들)

## ‘충남’ 을 이야기하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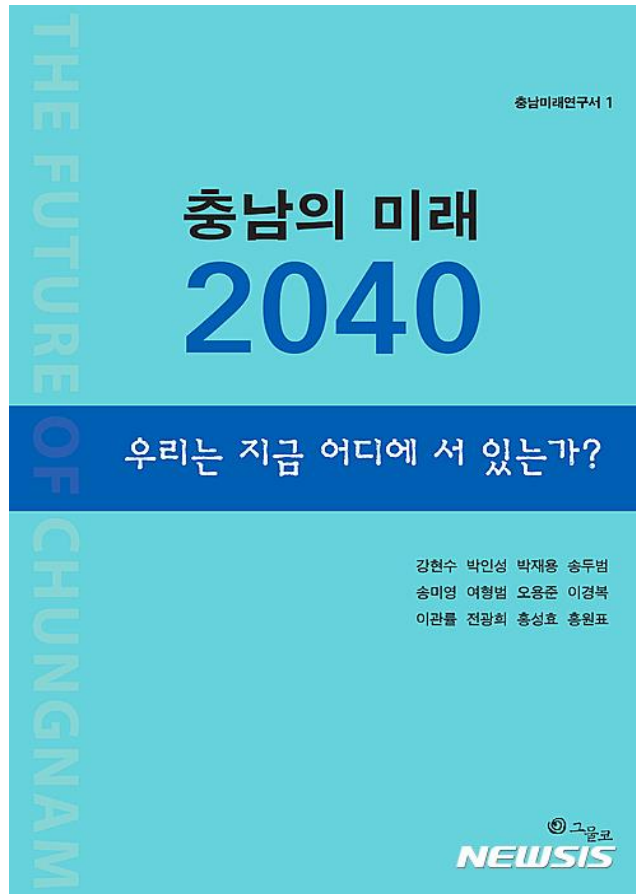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트렌드 연구, 나라 차원의 미래연구는 시중에 넘쳐나
- 충남의 현실 진단에서 시작: GNP가 아니라 PNG로 접근
- 전문가뿐 아니라 도민이 함께 써야 한다(2권은 전문가, 도민 등 39명이 집필)

## 우리가 원하는 미래상을 제시하자

- 미래예측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제시하자
- 미래연구를 미래설계능력을 기르는 과정
- 향후 충남 미래연구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. 보고서가 아니라 책으로



# 01. 충남의 미래 2040 연구 소개: 1권, 2권



# 01. 충남의 미래 2040 연구 소개: 충남의 미래상



## 충남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

- 현 충남은 인적 자본, 경제 자본은 정상; 자연 자본 마모, 사회적 자본 미약
- ‘지역 사회’의 실종: 아이에게 학교나 학원, 어른에게 직장이었을 뿐  
 ➔ 온전한 쉼터, 돌봄, 일터, 배움터, 놀이터로서 지역 사회를 일으켜 세우자

## 미래 충남 행복을 위한 ABC

- 자율(Autonomy):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
- 균형(Balance): 높은 삶의 만족도 비결. 자연자본 회복과 사회적 자본 축적·강화
- 연결(Connection): 생활/생산/혁신 주체들의 연결, 수도권, 중국 지역과의 상생

## 충남의 미래상: 삶에 힘이 되는 행복한 충남

- 가족, 지역, 국가, 시장 비중을 현 1:0:1:8 사회에서 1:2:2:5 사회로 가자
- 국가 복지의 적당 확대, 지역 비중의 증대
- 향후 충남 미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하는 ‘마중물’이 되기를



## 02. 2040년 충남인: 미래 예측



### 초고령화 사회 진입

- 209만(2015)에서 239만(2040)으로 인구 증가
- 고령화율 15.2%(2015) → 35.2%(2040)  
 ➡ 충남의 미래 인구구조는 출산, 사망보다는 인구이동이 좌우할 것

### 가구 가족 형태의 다양화

- 비혼, 만혼, 이혼, 장수: 1-2인 가구 증가, 여성 가구주 비중 증가
- 외국인 인구의 증가, 다문화2세의 증가  
 ➡ 표준가족(부모+자녀)에 바탕을 둔 현 정책 탈피,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해야

### 시군 인구 격차 심화

- 충남 북부권으로 인구 집중 심화,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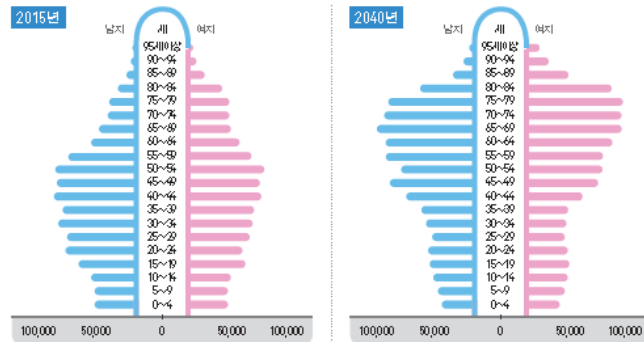


## 02. 2040년 충남인: 미래예측 그림

### 2040년 충남의 인구구조는?

충남  
미래이슈

#### 충남의 인구구조 변화



#### 충남의 인구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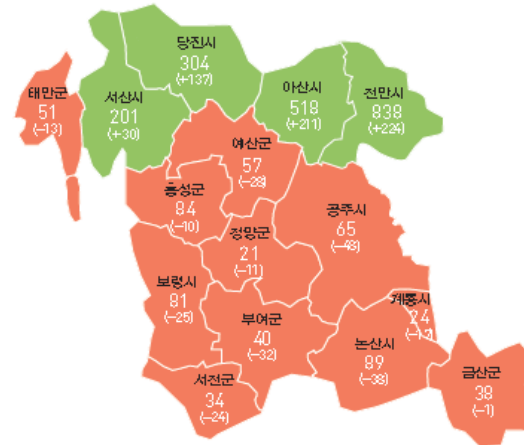
#### 충남의 고령화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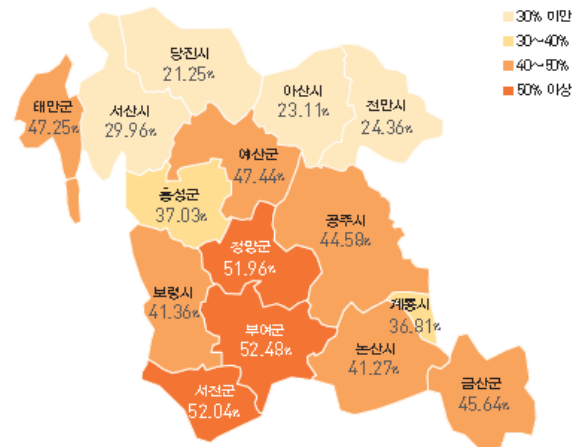
※ 출처: 충남연구원(2015) 충남경제인프라개발사업 제30호, 개구성

### 2040년 충남 시군별 인구추계 (2015년 대비 인구 증감량)

※ 단위: 천명



### 2040년 충남 시군별 인구추계로 본 고령화율



※ 자료: 충남연구원(2015) 충남리포트 225호



## 02. 2040년 충남인: 인구이동과 세대 간 분업



### 성공적인 기존 세대 간 분업

- 베이비부머는 도시로 나가 도시직종에 자리잡고 부모세대는 농촌에 남아 농사
- 직업과 거주지를 둘러싼 세대 간 분업
  - ➡ 사회변동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

### 새로운 지형

-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: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실업난, 자산가격의 하락
- 글로벌화, 스마트화: 변변한 일자리의 감소(사무직, 전문직, 숙련생산직)
- 교통통신의 발달: 도농의 상향평준화 또는 도농 수렴
- 장수사회의 도래: 노후 소일거리 → 또 하나의 직업
- 세대 간 농촌에 대한 인식 격차: 베이비부머와 자식세대의 확연한 차이





## 02. 2040년 충남인: 새로운 세대 간 분업



### 신 분업의 고리: 자산 분배와 돌봄

- 저성장 시대 베이비부머와 자식세대 간 자산 분배와 일자리 선택
- 베이비부머 손자손녀세대의 양육과 베이비부머 자신의 돌봄
  - ➡ 베이비부머의 직업과 거주지 변동을 불러올 것인가

### 세대 간 자산분배와 일자리

- 베이비부머는 주택소비를 줄이고 자식세대에 자산을 이전 → 거주지 변동?
- 베이비부머 노년 일자리와 자식세대의 일자리 선택 → 불확실성 증폭

### 상호 돌봄을 위한 선택

- 손자세대의 양육 부담에 베이비부머의 참여 필요
- 베이비부머를 위한 의료서비스 중요
  - ➡ 지리적으로 인접해서 살아야 하는 요구 증가: 최대 2시간 내 교통거리



## 02. 2040년 충남인: 신 세대 분업이 충남에 던지는 과제



### 지역 시민사회의 형성

- 전통 농촌공동체 → 자발성과 자원에 의한 시민사회
- 상이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지역사회

### 충남형 라이프스타일의 정립

- 도시나 농촌과 구분되는 ‘도농지역(都農地域)’의 라이프스타일의 구축
-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추구
- 교통·통신인프라, 다양한 경제활동기회,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을 바탕으로 해야

### 미래 세대의 도농 교류 활성화

- 농촌이 낯선 베이비부머 자식세대 → 국가적 차원의 대책 필요
- 베이비부머 자식세대가 농촌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
- 다양성의 매력 덩어리 충남지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



## 03. 2040년 충남의 삶터: 정주체계 예상



### 대도시권 성장과 중소도시의 쇠퇴

- 천안·아산권의 대도시로의 성장(인구 약 140만)과 세종·대전권의 확장
- 농촌 중심지 격인 중소도시의 쇠퇴 → 정주체계의 양극화
- 배후지 인구 감소, 중심지 기능 대체, 일자리 유출, 경제 온라인화

### 대도시권 성장에 따른 새로운 지역 격차

- 대도시권에 편입되지 않는 서산, 태안, 보령, 서천 등 지역의 도시서비스
- 내포권의 발전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?
- 천안·아산권은 수도권의 확장인가, 충청권 메가폴리스의 형성인가

### 중소도시의 쇠퇴에 따른 영향

- 농촌지역 자원의 고갈
- 도시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: 권역 격차, 계층 격차
- 도농지역의 매력 소실 → 충남의 정체성에 영향



## 03. 2040년 충남의 삶터: 정주체계의 미래상



### 서부권 거점도시의 발전

- 천안·아산권, 세종·대전권, 내포권의 정립
- 내포권의 발전동력은 바다(건너)에서 온다(별도 설명)
- 인천-청주-서산 공항 트라이앵글, 인천-평택-서산 항만 트라이앵글

### 중소도시의 재활성화

- 오프라인 기능의 중심지로 재정립: 학습, 문화, 예술, 정치의 거점
- 농업활동에 근거한 학습, 다양한 경제활동기회, 주민참여 활동의 중심지

### 도농 융합의 메카 충남

- 학생들의 도농 교류: 초중고 학점제 도입으로 가속화→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
- 도시농업의 메카로 부상: 생산물 선물, 기부 등
- 지역 특색의 먹거리, 휴양, 즐길 거리 등



## 03. 2040년 충남의 삶터: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



### 자가용 없이도 다닐만한 충남을 만들어야

- 생활권 간 광역교통: 버스 일변도 → 버스+철도
- 생활권 내 생활교통: 버스 → 버스+다양한 서비스 모델(DRT, 우버택시 등)

### 디지털 격차에 대비해야

- 기존 세대 간 격차는 기본적으로 소멸, 계층별(특히 사회적 약자) 격차 부상
- 교육기회 부족, 접근비용에 의한 제한 → 디지털 문맹 퇴치, 공공 와이파이 보급

### 프로슈머의 시대를 열자

- 생산은 기업, 소비는 가게라는 이분법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
- 태양광 자가 발전, 3D 프린팅, 공유경제 등 발전이 기술적 기초 제공
- 양극화 사회에서 프로슈머의 중요성, 지역사회 역할이 더욱 커질 것



## 03. 2040년 충남의 삶터: 태안반도



### 내포권 발전의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

- 세종·대전권, 천안·아산권은 수도권 기능적 분산을 디딤돌로 성장
- 내포권의 발전은 수도권이 아니라 바다(건너)에서 온다: 동아시아, 해양
- 태안반도는 대한민국 해양전략의 교두보

### 한중 해저터널을 둘러싼 인식의 전환

- 중국은 나라라기보다 ‘대륙’ 이다: 2-3억 규모 5개 경제권
- ‘한중’ 이 아니라 한중일이다: 끝점vs. 연결점
- 이 논의는 국가전략의 틀에서 뒷받침되어야 ➡ 『해양 충남 大구상』 연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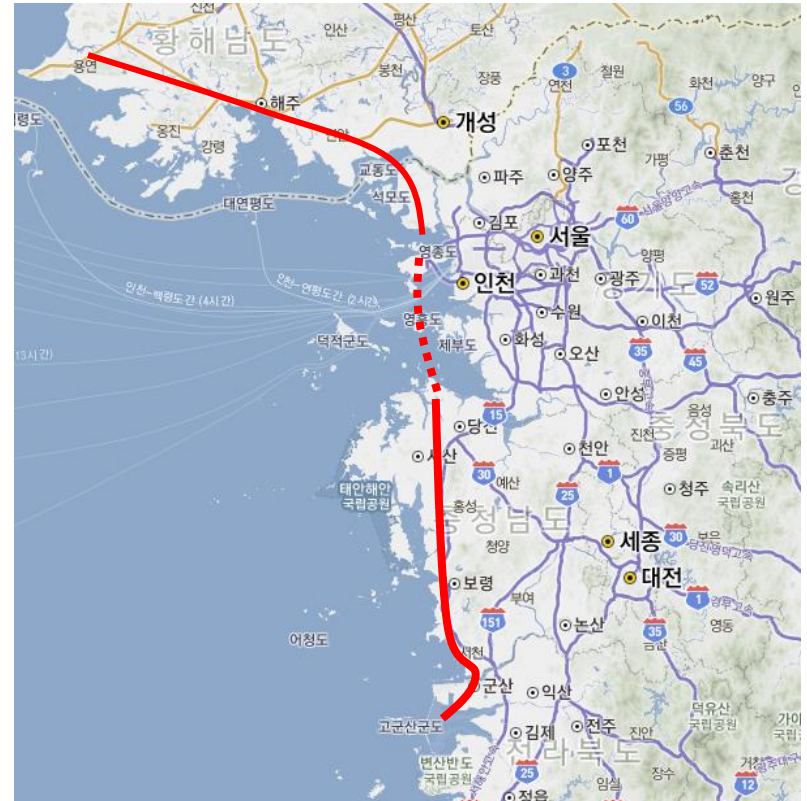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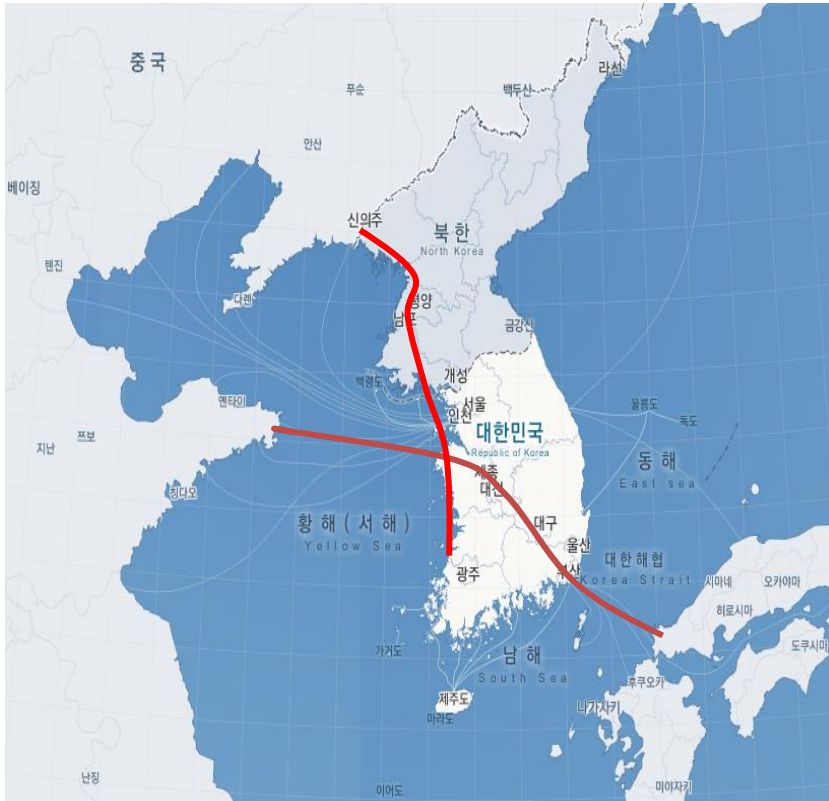
### 태안반도는 미래 한국 발전축의 교차로

- 새만금~태안반도~인천~해주~평양~신의주 \*태안반도-인천공항 해저터널
- (도쿄)~(시모노세키)~부산~대전~태안반도~(산둥)~(베이징, 상하이)
- 섬을 디딤돌로 해양으로 가는 전략(격렬비열도, 백령도, 이어도, 독도 등)



# 03. 2040년 충남의 삶터: 태안반도

한중일 해저터널, 태안~인천공항 해저터널



감사합니다

